

지방자치·국제

여수박람회 개막 한달 강동석 조직위원장 회견

“흥행부진·운영미흡 죄송... 남은기간 최선”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이 저조하고,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혼선을 빚은 점을 인정하며 사과드립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박람회를 치르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한달을 맞아 11일 조직위 강동석 위원장이 초반 흥행 부진과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조직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책임이 있는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성과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또 사전예약제 폐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케이팝(K-POP) 공연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 한 달간 거론됐던 논란 등에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세차례 예행연습 과정에서 예약제의 문제가 드러나 폐지가 고려됐으며, 현재처럼 전면 폐지하는 것도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조만간 일거러 가서 관람객을 위한 오후 예약방안 등 일부 보완책을 발표할

일부 예약제 검토... 여름휴가 방문객 증가 예상

관람객 분산위해 입체영상관·야외무대 설치키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약제에 취약한 노년층을 배려해 오전에는 선착순으로 입장하고, 여유가 있는 오후에 예약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이르면 다음주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여수엑스포 개막 후 되레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대만큼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해 모두가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또 환승 주차장에 대해서도 수요예측에 따라 3만20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승용차보다 버스와 열차

이용이 많았다며 수요 예측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의 여름휴가 및 학생 방학 등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당연히 기대된다”며 “박람회만 보기 위한 관람객이 아니고 체류형 및 휴가 겸 관람객이 증가하고 박람회 이후 상권은 여수의 인지도에 따라 찾는 사람이 많게 되면 당연히 경제 활성화는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해상무대와 아쿠아리움에 관람객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야외 아리움 인근에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입체 영상관을 개관했고, 예너지



파크 옆에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만들어 관람객 분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남은 두 달간 홍보와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향상시켜 엑스포를 보고 간 관람객의 입소문이 많이 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페루 실종헬기 탑승자 14명 시신 모두 수습

산악구조 인력 등 50명 투입

인근 '오콘가테'에 임시 안치



지난 10일 페루 마미라사산 해발 4900m 지점 헬기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페루 당국은 이날 헬기 잔해가 발견된 지역에 50명을 투입해 한국인 8명 등 탑승자 14명의 시신을 모두 찾았다. /연합뉴스

페루에서 연일이 두절됐다 나흘만에 발견된 실종 헬기 탑승자 14명의 시신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모두 수습됐다. 페루 당국은 이날 오전 사고 헬기 잔해가 발견된 지역에 산악구조 전문 인력 20명과 경찰과 군인 등 총 50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여 한국인 8명 등 탑승자 14명의 시신을 모두 찾았다. 구조 요원들은 오전에 13구를 수습한 뒤 2~3시간 가량 추가로 수색 작업을 벌여 나머지 1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현지 경찰은 시신 전부를 차량으로 4시간 가량 떨어진 인근 도시 '오콘가테(Oongate)'로 옮겨 시신 안치소에 임시 보관키로 했다. 이후 주 페루 한국 대사관 측과 협의해 시신을 쿠스코로 가져 수도 리마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페루 산악지역에서 암벽과 충돌해 테를 옮긴 뒤 법의학자가 참여한 가운데

데 신원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페루 당국은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방간 페루 현지에도 착하는 피해자 유족들과 DNA 대조 검사도 할 방침이다. 사고 헬기에는 삼성물산 직원 등 한국인 8명 외에 페루인 3명과 넬란드인, 스웨덴인, 체코인 각각 1명 이 타고 있었다.

페루 산악지역에서 암벽과 충돌해 한국인 8명 등 14명의 사망자를 낸 헬리콥터는 사고 전 고도를 높이다 구름에 가린 암벽을 보지 못한 채 정면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겔 페르난도 나바레테 로하스 페루 쿠스코주(州)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이 헬리콥터는 사고 전 고도를 높였다 구름에 가린 암벽을 보지 못한 채 정면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람회장 가는 길 빠르고 편안하게

광주에선 투어버스

매일 두차례 왕복운행... 1만명 예약

광주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까지 하루 두 차례씩 매일 왕복 운행하는 광주관광 투어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한 투어버스는 이날 현재 1만여명이 예약을 마쳤으며 첫 운행을 시작한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여 동안 3170명의 예약

자가 투어버스를 이용해 여수엑스포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투어버스가 이처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여수엑스포 기간 중 투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총 82일간 매일 무료운행을 하는데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어버스는 매일 오전과 오후 광주와 여수엑스포를 운행하며, 삼우지구 힐리데이인 광주호텔을 출발해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광주시청 앞 등 기공, 광주역, 산수교(산수오거리)를 거쳐 여수엑스포 행사장으로 직행한다.

그동안 시에서는 전화예약 폭주로 인한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약전화(062-233-3399)를 애초 1회선에서 3회선으로 증설했으며, 인터넷 예약도 24시간 예약 신청·변경·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의 여수엑스포

독일 출신의 행위예술가가 펼치는 카바레식 음악극 '아우토 아우토(Auto Auto)'는 자동차라는 뜻이다. 페차된 자동차로 바흐와 베니 굿맨,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선율을 연주하고 플라톤을 낭독하면서 자동차를 해체한다.

- ▲독일 문화공연 'Auto Auto'(오후 6시·엑스포홀)
▲국가의 날-아제르바이잔(엑스포홀·오전 10시)
▲가르야 가르야(오전 10시부터·아린극장)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오전 10시20분·천막극장)
▲말레이시아 문화공연(해양광장·낮 12시30분)
▲'점프'(오후 4시·천막극장)
▲DJ 댄스 쇼(밤 10시·해상무대)
▲어제의 관람객 수=3만8341명(이날 11일 오후 6시 현재)
◆누적 관람객 수 = 153만 5249명

北 “박근혜·정몽준 중복발언 공개할 수 있다”

북한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등 새누리당 대권주자들의 친북·중복 언행을 공개할 수 있다며 “정몽준, 김문수 등이 우리에게 와서 한 말을 모두 공개하면 온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날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공개질문장을 통해 “최근 남조선에서는 보수계당에 의해 전례 없는 중복세력 축적 대공판극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계당은 통합진보당 사태 등을 계기로 자들의 반통일대결 책동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모조리 중복좌파 감투를 씌워 매장하려 한다”며 이같이 위협했다.

조평통은 “박근혜는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해 장군님(김정일)의 접견을 받고 평양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남측의 전·현직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한 모든 일과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남조선의 유신 독재자가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평양에 밀사료 파견해 우리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다 받아들이고 7·4공동성명

에 도장을 찍은 것은 중복이 아닌가”라며 “전두환과 노태우 군사정권 역시 안전기획부장이었던 장세동과 서동권 등을 평양에 비밀특사로 파견해 우리 최고 수뇌부의 접견을 받고 진상품을 바쳤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노태우 “사돈에 맡긴 비자금 654억 있다”

검찰 수사착수... 환수펀 '미납 231억' 완납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서울 중구 소공동 센터빌딩 매입, 서울 테헤란로 빌딩 신축 등과 관련해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654억6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진정서를 대검에서 넘겨받아 금융조세조사2부에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의 추징금 환수 결과 현재까지 2397억원(91%)이 국고로 환수됐고, 231억원이 미납인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은 확정된 추징금 가운데 남은 미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 같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에선 셔틀열차

폐막 때까지 무료... 8만1000여명 이용

순천역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 앞 엑스포역까지 운행되는 무료 셔틀열차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는 11일 “지난달 12일 박람회 개막 이후 순천역에서 여수엑스포역간 무료 셔틀열

차 이용한 승객이 11일 현재 8만 1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이용객은 평일 1500여명, 주말·공휴일은 3700명 수준이다. 이 열차의 운행은 평일 순천→여수

각 7회씩 14회, 주말·공휴일은 순천→여수 14회, 여수→순천 15회 등 총 29회다. 첫차는 평일의 경우 순천 출발 오전 7시 50분, 여수 출발 오전 9시 8분이다. 주말·공휴일에는 순천 출발 시각은 동일하나 여수출발 시각은 오전 8시로 당겨진다.

막차는 평일 순천 출발 오후 8시 52분, 여수 출발 오후 10시 15분이다. 주말·공휴일의 경우 순천 출발 오후 9시 40분, 여수출발은 10시 30분이 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인동심일부동산 호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